



한우

한우교배 도우미
스마트폰 앱 개발

맞춤형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한우 암소 신랑찾기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으로 나왔다. 농촌진흥청 한우 교배 도우미인 '한우신랑찾기'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우신랑찾기' 앱은 암소의 혈통정보를 이용해 농가의 개량목표에 적합한 보증씨수소 정액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암소의 개체번호와 그 아비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보증씨수소와의 근교계수와 각 교배조합 별로 태어날 송아지의 추정생산능력을 계산하고 등급별로 표시해 준다. 농가는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12개월령 체중 등 5개 형질 별로 A등급에서 D등급까지 4단계로 표시한 보증씨수소 정액 정보를 보고 가장 적합한 정액을 고를 수 있다.

또한, 한번 입력한 암소 정보와 선택한 정액의 정보는 저장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우신랑찾기' 앱은 매 호 3,000부씩 발행되는 「한우 교배조합 길라잡이」책자(10호까지 발간)나 PC용 엑셀 프로그램을 대체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6개월마다 수행하는 국가단위 한우 유전능력평가 결과가 바로 업데이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이승수 연구사는 "한우신랑찾기 앱을 이용해 농가가 장기적 개량목표를 가지고 교배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근친교배 방지와 다양한 형질의 개량이 가능하도록 이 같은 앱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한우신랑찾기 앱을 안드로이드폰용으로도 곧 개발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도나희기자

양돈

3기 한돈자조금 제1차 대의원회
개최, 의장이병규씨·관리위원장
이병모씨 선출

한돈자조금 대의원회의장에 이병규씨가, 관리위원장에 이병모씨가 각각 선출됐다. 한돈자조금 대의원회는 지난 11월 15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제3기 대의원 150명 중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제1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했다. 대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 현 대한양돈협회 부회장인 경북 청도의 이병규 씨를 임기 2년의 대의원회의장으로 선출하고, 현 대한양돈협회 회장인 충남 천안의 이병모 씨를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의원들은 또 ▲경기도 김건호, 박호근 ▲강원도 김용환 ▲충북도 전흥우 ▲충남도 이제만, 장장길 ▲전북도 김현욱, 이웅렬 ▲전남도 최희태 ▲경북도 최재철, 이상용 ▲

경남도 이재식, 박권호 ▲제주특별자치도 고권진 씨를 관리위원으로 뽑았다.

특히 이날 후보자간 경합으로 투표까지 실시한 대의원회 감사에는 현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인 경기 안성의 이영규 씨와 현 대한양돈협회 제주지부장인 제주시의 김성진 씨가 당선됐다.

이병규 대의원회의장은 “새로 구성된 3기 대의원회에서 제5대 대의원회의장을 맡게 돼 감사하다”면서 “2004년 농축산업계 최초로 시작된 우리 자조금이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고 양돈자조금 때보다 더 성숙한 한돈자조금이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98만1000마리(2010년 모돈 수)의 80%를 기준으로 농가거출금 납입률 95% 등을 전제로 한 169억1000여만원의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을 의결했다.

농수축산 홍정민기자

양계

‘우리맛닭’ 수출 ‘청신호’ 일본 신와테크노사 관계자, 수입 의사 밝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16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복원한 ‘우리맛닭’이 일본 수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무역 전문업체인 신와테크노서비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맛닭 농장, 가공장, 대형백화점, 레스토랑 등을 방문하고 이미 산업화를 갖춘 토종닭 현황을 둘러보며 우리맛닭의 일본 수입을 희망하고 돌아갔다.

특히 일본 관계자들은 방한 기간 중 축산과학원을 방문해 우리맛닭 복원 배경과 방법, 종자의 중요성 등을 들으며 우리맛닭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국의 축산 기술과 토종닭 인증 기준 등을 비교하고 향후 선진화된 축산 기술 교류를 약속했다.

이후 한닭 판매인증 1호점인 큰나무집을 방문한 일행은 궁중약백숙과 토종삼계탕을 맛보고 우리 한닭이 일본인의 입맛에도 맛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신와테크노사의 관계자는 맛있는 우리맛닭을 일본 관계자에게 소개하기 위해 토종삼계탕 소량을 일본으로 가지고 들어가 일본 농림수산청, 백화점, 유명 레스토랑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열 계획이다.

신와테크노사의 다케우치 이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맛닭의 우수성을 잘 알았고, 한국 토종닭이 일본에 조속히 수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향후 우리맛닭의 일본 수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맛닭 수출을 위해 8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한 한국토종닭협회 대구·경북지회 배신국 지회장은 “우리맛닭 수출을 위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준비했고, 곧 성사될 것 같다”고 밝히며 “우수한 한닭이 일본으로 수출된다는 것은 한류 문화에 앞장서 한식세계화에 일조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한미 FTA 등 향후 예고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닭의 수출 장려로 토종닭 산업의 성장 엔진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일본 뿐만 아니라 현재 토종닭을 수출하고 있는 베트남에서도 올해 연말에 대규모 토종닭 시식회를 개최해 수출의 포문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경제 박정원기자



“국내산 흰우유 우수성 알리기에 총력”
낙농자조금,

내년 살림규모...84억7천만원
소비홍보에 예산 절반 40억 배정기로
TV광고·우유교실 사업 등 적극 추진

낙농자조금은 백색시유 소비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흰우유 소비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8일 서울 방배본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2011년도 제2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자조금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낙농자조금은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초 FMD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이월금 10억원을 포함해 총 84억7천900만원의 예산으로 소비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국내산 흰우유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고 교육과 체험행사를 통해 흰우유의 가치를 고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홍보 사업으로 전체 예산의 47%인 40억원을 배정, 올해 추진하지 못한 TV광고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어린이, 주부, 노인 대상 찾아가는 우유교실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계층별, 연령별 교육과 체험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송PPL과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명 연예인이거나 영양학 박사 등을 내세워 우유 음용의 효과를 소비자들

에게 전달해 우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불식시키는데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낙농자조금은 또 HACCP교육, 여성낙농인홍보요원화교육, 목장형유가공교육, 후계낙농인교육 등 농가 대상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조사연구사업으로는 낙농자조금성과분석, 육성우전문목장 설립방안 교육, 낙농선진국의 유대체계 연구, 전국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 FMD백신접종과 관련 젖소의 사양관리 요령, 축사시설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양봉농가 밀원수림 조성
농식품부·산림청·지자체 공조

농식품부는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아카시아나무숲 등 밀원수림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카시아나무는 서식면적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는 꿀벌이 바이러스로 인해 폐사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군은 아카시아숲 등 밀원수단지 조성을 원할 경우 산림청의 '밀원수 조림 시범단지사업' 과 연계해 추진하면 된다.

한국농어민 이진우기자

